
뷰노, 국내 1 위 EMR 기업 유비케어와 의료 AI 공급 계약 체결

골연령 판독 인공지능 솔루션 ‘뷰노메드 본에이지™’ 국내 독점 공급
유비케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기반 국내 매출 확대 가속화 기대



[참고이미지] 뷰노 및 유비케어 로고

[2021-02-05] 글로벌 의료인공지능 선도 기업 뷰노(대표 김현준)는 지난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유비케어(대표 이상경)와 뷰노메드 본에이지™(VUNO Med®-BoneAge™)의 국내 독점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.

이번 계약을 통해 유비케어는 치과를 제외한 국내 병·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뷰노메드 본에이지™의 독점 판매를 맡는다. 자사의 EMR ‘의사랑’,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(PACS) 등 다양한 의료 디지털 IT 솔루션과 뷰노메드 본에이지™를 통합한 영업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면서, 국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유비케어는 국내 전자의무기록(Electronic Medical Record, 이하 EMR) 시장 점유율 1 위 기업으로, 전국 1만 7천여 곳의 병·의원 네트워크와 20여개에 이르는 전국 법인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. 뷰노는 유비케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.

뷰노메드 본에이지™는 지난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다. 성조숙증과 저신장증 등 성장 질환 진단에 활용되는 골연령 판독을 돕는 소프트웨어로서, 인공지능이 소아 청소년기 환자의 수골(손 뼈) 엑스레이 영상을 자동

분석하고 가장 유사한 골연령을 최대 3 순위까지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.

김현준 뷰노 대표는 “이번 계약으로 국내 최대 EMR 기업인 유비케어의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뷰노메드 솔루션의 매출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향후 후속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제품들에 대해서도 유비케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유비케어 이상경 대표는 “국내 1 호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본에이지™의 독점 판매권을 얻게 돼 매우 뜻 깊다”며 “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사간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뷰노는 골연령 판독보조 뿐 아니라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, 흉부 CT 영상 기반 폐결절 스크리닝, 뇌 MRI 기반 치매 진단 보조, 안저 진단 보조, 의료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솔루션 8 종에 대한 국내 상용화에 성공했다. 이중 5 가지 솔루션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해 다양한 유럽 국가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일본 PMDA 인증을 받은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다수를 대상으로도 일본 현지 의료기관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.

###